

2023년 9,10월 코칭뉴스레터

# COACHING NEWS LETTER

제 53호



2023 / 9, 10

# CONTENTS

04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코칭을 하는 목적 2가지

09

코칭연구소 소식

9~10월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13

제1회 평신도축제컨퍼런스 개최

코칭으로 변한 삶 간증

**GO THRIVE COACHING** Renewing Pastor Reviving Church

은 교회의 건강을 진단, 평가,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미국에서 1997년도에 시작하여 20년간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다섯 권의 관련 서적을 발행하였고, 1,000교회, 2,0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500명의 평신도를 진단, 평가, 처방해왔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 부흥(reviving), 지역사회 변화(refreshing)를 5대(5 generation)에 걸쳐서 실현하는 “3R5G시대 : 2030에 3,100명의 코치 세우기”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역은 미국, 캐나다, 한국, C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서 목회 코칭, 교회리더 평신도 코칭, 건강진단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4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코칭 받으면서  
연년생 아들 둘 코칭하기”**

- 늘푸른교회 김진희 사모

17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코칭 중 암 진단.. 건강 되찾아"**

- 동일교회 최필자 권사

20

평신도축제컨퍼런스 화보집

26

평신도축제컨퍼런스

**목표와 실행전략으로  
3명에서 13명까지 늘어**

- 늘푸른교회 심규옥 전도사

29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 다녀와서

- 온고을제자교회 김지선 자매

30

평신도축제컨퍼런스

**"느리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 서군정 형제

31

평신도축제컨퍼런스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코칭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 신태인교회 정미선 집사

33

북리포트 1,2

**『가슴이 뛰는 삶』**

- 인천사랑교회 김현자 사모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 GO Coaching Column

## "세대를 넘는 코칭을 하는 목적"



2023년 10월 9일(월)은 GO 코칭 역사상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코칭을 받았던 분들이 세종 하나 교회에 모여 각 교회 성도들 속에 역사하셨던 경험과 간증들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2030년 '1,600쌍의 코칭 파트너를 세우는' 비전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맞이하면서 '세대를 넘는 코칭을 하는 목적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변화의 삶(Renewal Life)(롬 12;2)

코칭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개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성경적 사고방식(unbiblical thought)을 따라 살지 말자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지만, 수백 수천만 명의 인생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복권(lotto)과 같은 것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위장된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는 행동은 복권을 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갬블링(gambling)을 하는 것이나, 지나친 자기 욕심을 좇아 아파트에 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살전 3:10) 진정한 행복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얻어지는 댓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윗이 백성들을 섬겼듯이 "수직적인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시 16:3)"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섬김 중심"(막 10:45)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낸다고 한 말씀처럼

## 자변 코칭(Self Coaching)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은 다른 사람을 코칭 하기 전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1)나를 부르심의 목적 (Mission), (2)내게 주신 **10/20년 후에 모습(Vision)** 그 (3)비전 성취를 위한 성경적 **신념과 가치(Core Value)**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나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4-5)목표와 실행전략(Goal and Action Strategy)**를 학습하고 **삶과 사역의 청사진(5가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개별 코칭을 받아** 개인이나 기관이 행복해지면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교재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선교적 공동체”(요20:21)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뒤흔치고 올때에 백성의 리더들과 소통하였듯이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들과 팀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대상 13:1-5)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이 “목적이 불분명한 삶에서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자변 코칭”입니다. 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사명/mission), 인생들에게 주신 미래 그림(비전/vision)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핵심가치/core values)도 세우고,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위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목표/goal)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생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코치의 도

움을 받아 성취과정을 밟아 갑니다. 어느 정도 성숙해 졌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료나 후배를 코칭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일명: 세변 코칭)”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더불어 또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코칭을 함으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좇는 삶을 살아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롬 12:2하) 물론 이 일은 코치와 피코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 세변 코칭(Coaching..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은 다른 사람을 코칭하기 위해 (1) 코칭은 왜(why) (2)코칭이란 무엇(what) (3)코칭은 누가(who) 코칭은 어디서 어디까지(when) (4)코칭은 어떻게 진행되고(how) 그리고 (6)코칭은 언제 끝나고(when)



라는 6하 원칙을 학습하고 코치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플레이어 코치(player coach)**, 즉 사해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지 않고, **갈릴리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어** 제2세대, 제3세대, 제4대와 제5세대에 걸쳐 **배가 코칭(재생산)**을 하도록 돕는 과정

## 2. 선교적 삶(Missional Life)(딤후 2;2)

코칭을 하는 두 번째의 목적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코치가 피코치 동료나 후배를 만나 코칭을 하는 일은 한 세대 코칭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1세대인 영적 선배 바나바가 제2세대 사도 바울을 만나 변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세대 영적 코치인 디모데를 만나 코칭하였듯이 또 3세대 영적 디모데가 제4세대 충성된 사람들을 코칭하였듯이

이, 그리고 제5세대 다른 사람들을 코칭하였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자기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영적 코칭을 하여 적어도 제5세대를 넘을뿐 아니라 제6세대, 제7세대, 제8세대, 제9세대 그리고 제10세대를 넘어가는 코칭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 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는 선교적 삶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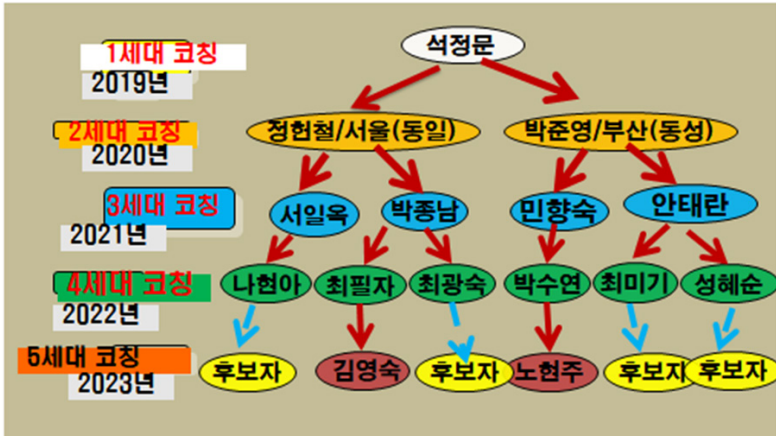
디모세 후서 2:2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 대학 시절이 생각합니다. (1) 저는 대구 Y대학 경영학과에 다니면서 후배인 (2) C 형제와 기타 여러 형제들을 제자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큐티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C 형제는 (3) 후배인 S 형제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 S 형제는 후에 신학교를 마치고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목회한후 최근에 은퇴하였습니다. 그 S 형제는 또 후배인 (4) S 형제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 S 형제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5년전 알래스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 형제는 또 후배 (5) K 형제를 제자로 세웠고 그는 현재 남미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남미 선교사로 간 K 형제 이 후에 제6세대, 제7세대 제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 세대별(5G) 넘는 코칭



1세대를 넘어 5세대로 넘어가는 코칭

## 일대일 세대별(5G)코칭(딤후2:2)(한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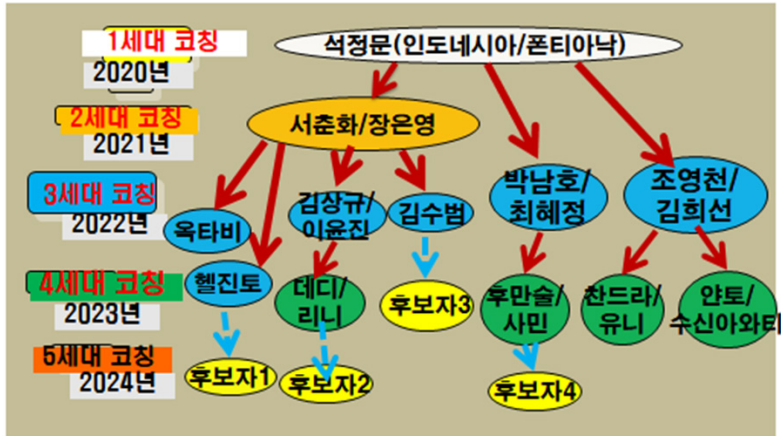
제 4세대 코칭이 이룬 동일/동성 교회

저는 이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하나님  
의 뜻을 좇아가는 코칭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남침  
례회 선교부(NAMB, SBC) 아시아인  
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했던  
멘토링까지 합치면 27년이 됩니다. 지  
난 4년 전 부터 하나님께서 일대일 코  
칭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일 년전 입니다. 저로부터 코  
칭을 받았던 J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인들을 코칭하

는데 필요한 “일대일 팔로업 코칭 가이드 북”(one to one follow up coaching guide book)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가이드 북을 만든 후 일대일 코칭은 날개(?)를 달기 시작하였습니  
다. 서울 동대문구의 D 교회 J 목사는 제2세대 평신도 P 권사를 코칭하였습니다. 코칭을 받고 일년이 지나면서 P  
권사는 제3세대 C권사를 코칭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년이 지난 후에 제3세대 C 권사는 현재 제4세대 K 권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부산진구 D 교회 P 목사도 제2세대로 M 권사를 코칭하자, 1년 후 제2세대 M 권사는 제3세대  
P 집사를 코칭하였고, 1년 후 제3세대 P 집사는 현재 제4세대 N 집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E 교회  
의 S 목사는 제2세대 S 전도사를 코칭하였고, 그 S 전도사는 현재 제3세대 K 권사와 S 집사를 코칭하고 있습니  
다. 이번 가을에는 제4세대 코칭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태국 치앙마이의 O 선교사  
와 K 선교사 부부는 제2세대로 인도에서 태국으로 온 Y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을 코칭하였고, 제2세대 Y 선교  
사는 현재 캄보디아로 옮겨 사역하고 있는 K 선교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마리 북쪽 미얀마 국  
경지역 메아이에 계시는 L 선교사와 C 선교사 부부는 제2세대로 최초로 현지인 S 전도사와 기타 2명의 기관 목  
회자들을 코칭하고 있으며

## 일대일 세대별(5G)코칭(딤후 2:2)(열방3)



제 4세대 코칭을 준비하는 인도네시아팀

그 제2세대 S 전도사는 제3세대 현지인 N 자매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S 선교사는 제2세대로 K 선교사와 또 다른 3명의 선교사들을 코칭하였고, 그 중 K 선교사는 제3세대로 현지인 D 목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넘어 가는 코칭이 두 번째 코칭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넘는 코칭 사역을 하면서 지난 4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2023년 9월말 현재 257쌍의 파트너(

미국은 포함하면 314쌍)들이 한국과 열방에서 일대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안성, 용인, 구미, 선산, 김천, 포항, 하양, 문경, 전주, 신탄인, 고창에서 코칭팀이 제1세대를 넘어 2세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제3세대를 넘어 4세대까지 세대를 넘는 코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방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말리, 폴란드, 독일 등에서 제1세대에서 제4세대 걸쳐 세대를 넘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23년 9월 현재 23명의 목회자들이 47명의 목회자들을 일대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넘는 코칭이 목회자들과 사모, 선교사들과 사모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의 삶을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칭 사역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영웅들입니다. 할렐루야!

### GO 코칭의 목표성취율(2020-2023년)

| 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합계   |
|----|-----|------|-----|-----|------|
| 20 | 8쌍  | 16쌍  | 0쌍  | 0쌍  | 24쌍  |
| 21 | 28쌍 | 18쌍  | 0쌍  | 0쌍  | 46쌍  |
| 22 | 71쌍 | 81쌍  | 22쌍 | 0쌍  | 174쌍 |
| 23 | 80쌍 | 119쌍 | 55쌍 | 3쌍  | 257쌍 |

\*참고1: 1:1 코칭 파트너들이 매년 재생산이 2배에 가깝게 증가  
참고2: 이렇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면 2024년에는 500쌍, 2025년에는 1000쌍, 2027년에는 2,000쌍으로 증가 가능  
참고3: 그러나 증가와 더불어 코치들의 역량과 리더십이 증가해야 감당

피코치와 코치의 파트너십(쌍)의 증가 수치

# 2023년 9~10월

## 지역별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 1. 포항 말씀이 샘솟는 교회 평 코칭 세미나

지난 2023년 9월 9일(주일) 포항 말씀이 샘솟는 교회(담임:김석기 목사)에서 오전 11:00 예배에서는 “목표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설교 석정문 교수)에는 30여명이, 그리고 오후 2:00~4:30사이에는 12명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에서 사명과 비전에 대한 강의, 그리고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2024년을 향한 각자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각팀에서 만든 샘플을 나누면서 목실기를 만드는 훈련을 하였다. 이제 12월경에 다시 제2부 인생의 핵심가치 세우기를 하고,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에 근거해서 2024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훈련을 할 계획을 세웠다.



포항 말씀이 샘솟는 교회 코칭팀 모임

### 2. 구미 경서 노회 코칭팀을 위한 코칭 세미나

구미 경서 노회(통합측) 4분의 목사님(박정양 목사, 배상호 목사, 권영철 목사, 그리고 박은숙 목사)이 선산읍 장로교회(담임: 김상로 목사)에서 2023년 8월 28-29일(월-화)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 그리고 9월 18-19일(월-화)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4일간의 코칭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일구 일성으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배웠으면 목회를 차별화시켰을 것이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창조적 사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고백을 하였다.

그러나 강사 석정문 목사는 늦어서 못하는 법이 없기에 지금이라도 남은 10-20년의 목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GO 목회 코칭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자변코칭을 통해 삶과 사역의 청사진(부르심에 대한 사명, 비전, 핵심가치)를 만들게 하고, 그 3 가지에 기초해서 일년간 삶과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어 정해진 코치로부터 도움을 받아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밝는다. 그리고 “세변 코칭”은 이미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1년간 코칭을 받은 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동료나 후배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코칭을 하는 과정을 취급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11월 13일(월) 오전 10:00부터 오후 4:30 구미 동일교회(권영철 목사)에서 모여 “세변 코칭”의 남은 부분을 학습하고, 각자 준비한 목실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경서 노회 구미 목회자 코칭팀

### 3. 인천 지역 평신도 리더 코칭

9월 16일(토)과 23일(토) 양일간 오전 10:00부터 오후 4:30 사이에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대일 코칭이 진행 중에 있는 7개 교회의 목사님들중 제1차적으로 새인천 교회(김기덕목사)와 사랑침례교회(엄태운 목사) 평신도 리더 12명을 초청하여 새인천 교회에 모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김기덕목사(새인천교회), 엄태운 목사(인천사랑교회), 정헌철 목사(서울동대문구 동일침례교회), 권병국 목사(인천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석정문 교수(그린오션코칭 국제 대표)가 인도하였다.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새인천교회에서는 9명(김상표 안수집사, 김태인 집사, 장정이 권사, 이춘숙 권사, 박선희 권사, 최복자 권사, 김현숙 권사, 박선희 권사) 그리고 사랑교회(최선자 권사, 엄주찬 형제, 엄태준 전도사)가 참석하였다.



인천 평신도 코칭팀 자변 코칭 세미나 후

#### 4. 전주지역 : 전주 온고을 제자교회(박정일 목사) 조직 코칭

10월 8일(주일) 오전 10:30에 전주 온 고을 제자교회(박정일 목사/박선순 사모)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석정문 목사를 초대하여 “목표를 가진 인생을 살아라”(빌 3:14)는 설교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2:00-5:00까지 온고을 제자 교회가 나아갈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그 후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모여 2024년 성취할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13개 팀들이 나와서 각자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한달 간 각 기관과 부서별로 각자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어 11월에 각 기관과 조직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재정리를 하고 12월에는 석정문 목사와 함께 재 정리하고 확정을 짓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전주 온고을 제자 교회 조직 코칭

## 5. 제1회 평신도 코칭 컨퍼런스 개최

2023년 10월 9일(월) 오전 10:00-오후 4:00 세종하나 교회(위남환 목사)에서 제1회 평신도 코칭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세대를 넘는 코칭(coaching beyond the generation)”으로 지난 4년간 제1세대 코칭을 넘어 제2세대, 제2세대 코칭을 넘어 제3세대 그리고 제3세대 코칭을 넘어 제4세대를 코칭한 목회자들과 사모들로부터 코칭을 받았던 평신도 리더들 102명을 초청하여 세대를 넘는 코칭의 철학과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레이크레이션(김한진 전도사와 노현주 집사)으로 시작하여 개회예배(조대식목사), 환영인사(위남환목사), 주제강의(석정문목사), 실행전략팀 이야기(위성일집사), 동일교회이야기(정현철, 박종남권사, 최필자권사), 온고를 제자교회 이야기(박선순사모, 박문성장로), 김제교회이야기(최태규목사), 신태인 교회 이야기(정미선집사), 고창삼광교회이야기(윤보열 목사, 김희순권사) 경산 새하양교회이야기(남주현목사와 권주형 자매), 안성동아시아 신학원 이야기(최선희 교수, 팡레이 전도사, 서군정 전도사, 양고봉 전도사), 동성교회 이야기(박준영 목사, 민향숙 권사, 박수연 집사, 노현주 집사 그리고 폐회예배(임종수 선교사)로 진행되어 오후 4:20분에 마쳤다.



세종하나교회 제1차 GO 평신도 리더 코칭

# 건강한 교회문화 코칭으로 세워가는 전국 교회들 한자리에

제1회 평신도축제컨퍼런스 개최...코칭으로 변한 삶의 태도 간증



코칭으로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14개 교회와 기관 목회자와 평신도 1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교회에서 코치로 또는 피코치로 서로를 세워가는 권사와 집사들이 코칭을 통해 변한 삶의 태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간증했다.

그린오션코칭연구소(대표 석정문)는 9일 세종시 하나교회(위남환 담임목사)에서 제1회 GO코칭 평신도축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동일침례교회 4세대 코치 최필자 권사는 2021년부터 담임목사로부터 코칭을 먼저 받은 후배 권사로부터 코칭을 받으며 암을 극복한 경험을 나눠 감동을 선사했다. 최 권사는 올해부터 코치가 되어 김영숙(76) 권사를 코칭하고 있다. 최 권사는 “코칭을 시작한 후 몇 개월 후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일독을 하겠다는 삶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다보니 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을 이겨내는 상황이 되었다”며 “코칭을 통해 시대를 분

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코칭사역은 성도들이 각자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짜고, 목회자가 코치가 되어 성도들을 한달에 한 번씩 만나 정한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다. 1년간 목사의 코칭을 한 성도는 코치가 되어 다른 성도들을 코칭할 수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 내 각 부서도 구성원들이 부서의 목표와 전략을 짜서 조직코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종 하나교회는 교회 안에 실행전략팀을 구성해 교회 조직 문화를 코칭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실행전략팀장 위성일 집사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다”며 “교회 조직이 수평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을 우리교회 코칭 문화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푸른교회는 유치부 조직을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 운영하면서 어린이

들에게 코칭을 적용하여 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사례를 전했다. 부산동성교회에서도 권사가 집사를, 집사가 신입집사를 코칭하며 관계가 돈독해져가는 사례를 나눠 귀감이 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 평신도들 외에도 동아시아중국신학교에서 코칭수업을 진행하는 최선희 교수와 수강생들이 찾아 일대일로 코칭하는 경험을 나눴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핑레이 학생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내가 왜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가 같을 때가 있었는데, 일대일코칭을 하면서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며 “코치가 내 계획을 세워주지는 않았지만, 시간의 우선 순위와 사명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린오션코칭연구소는 코칭세미나를 개최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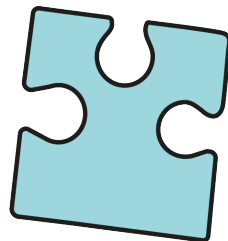


## 코칭 받으면서 연년생 아들 둘 코칭하기

| 자녀코칭

글 : 늘푸른 교회 -김진희 사모

저는 이회금 사모님과 2020년 11월 4일부터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모님께서 피코치를 자녀로 정해서 자녀 코칭을 해볼 것을 권해주셔서 2022년 3월부터 자녀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연년생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자녀에 관한 육아서적과 강의 등을 들으며 정보와 조언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부터 첫째 아이는 비염과 천식으로 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갔고, 임신 때 초음파 결과 장애아일 확률이 높다는 소견에 출산하기 전까지 부부가 함께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나 또래 아이보다 키가 크고 영리하며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역시 태어난 이후 몸이 약하여 일주일에 한번 꼴로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았고 엉덩이 안쪽에 염증이 생겨 전신마취를 하고 돌이 되기 전에 2번이나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픈 아이들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코칭의 시작.

자녀코칭이라는 것이 사실 거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코칭과 다른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코치를 부모로 둔다는 것이 단순히 코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코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성장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써 본을 보이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안에서 사랑을 줄 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코칭을 처음에 시작 할 때 저도 자신이 없었고, 또한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이들을 코칭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코칭을 시작 할 때 코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필요성을 어필했지만 솔직히 두 아이 다 귀찮아했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권위로 시작하였지만 "엄마도 코칭을 받아보니 너무 좋아서 너희들에게도 권하는거다" 설득을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코칭책을보고 레포트를 쓰고 또 사모님과 온라인으로 코칭 받는 모습을 줄곧 보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장모델로 하여 누가보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토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영적인 목표**(예 하루에 성경 4장씩 읽  
 기), **육적인 목표**( 학교 왕복 도보로 가기), **실력  
 적인 목표**( 하루 정해진 공부 문제집 풀고 검사 받  
 기), **사회적인 목표**(일주일에 한번 이상 놀이터에  
 서 친구들과 놀기)를 세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목표를 다 성취 할 수 있도록 세웠고, 사실 목표를  
 세우기 전부터 단지 목표만 세우지 않았을 뿐, 전  
 부터 실천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  
 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세울  
 때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옆  
 에서 도와준 것이 전부입니다. 실행전략을 만들 때  
 도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 코칭: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식적인 통로.

2022년 3월부터 코칭을 시작했는데 아이들 각각  
 1:1로 10분~15분 정도 한달에 한번 시간을 정해  
 서 코칭을 하였습니다. 1:1 코칭을 통해서 아이한  
 데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아이의 삶을 나누  
 고 들어주는 공식적인 도구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 아이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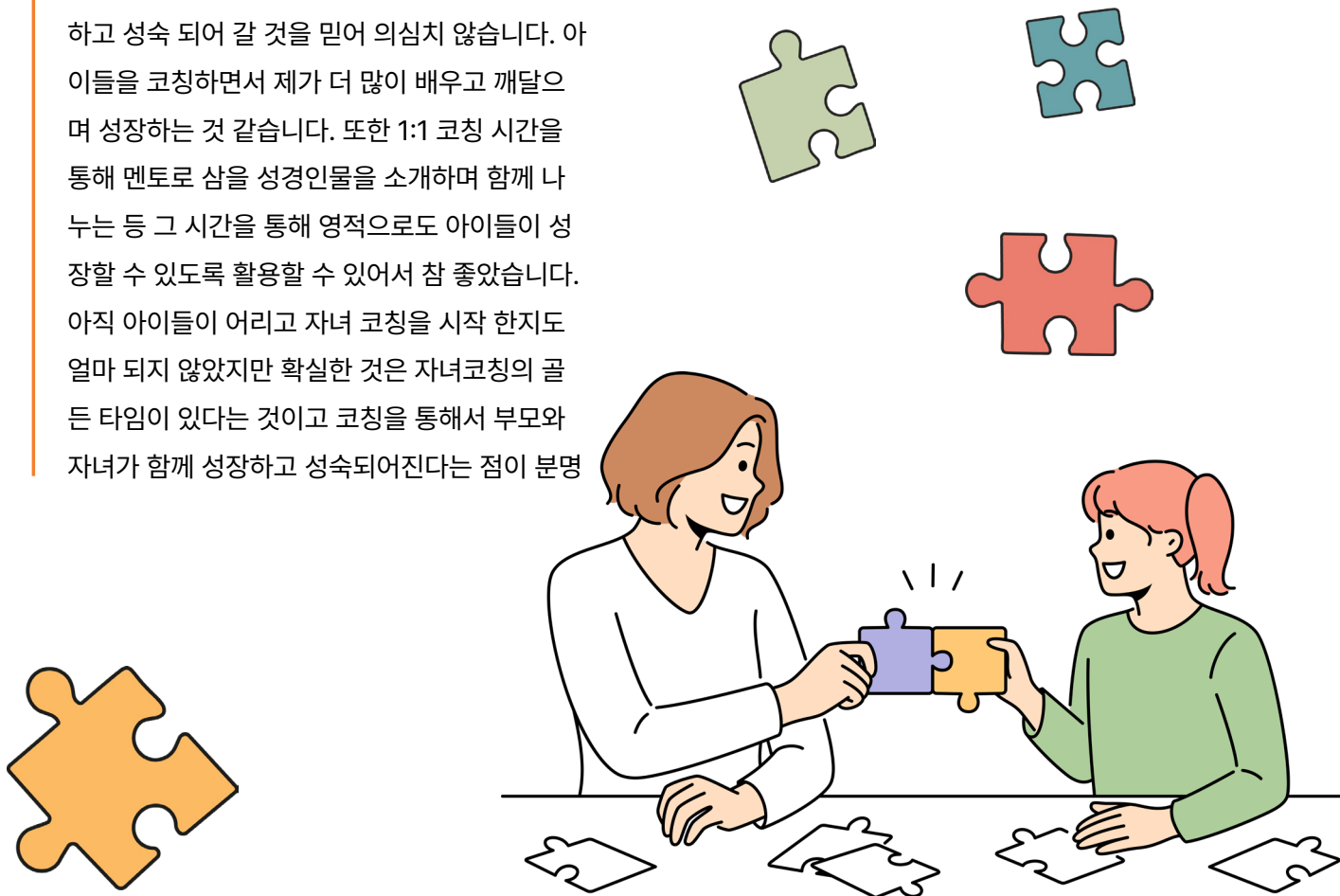
말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행  
 함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때 그때 채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를 많  
 이 해주고, 상을 주니 아이들이 좋아하며 코칭 시  
 간이 자기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부터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를 들어 그전에는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  
 했다면 그 부분을 많이 절제하며 코칭의 목표와 결  
 부시켜 아이들에게 인지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  
 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목표를 대부분 실천하였  
 는데 90~100%실천 했을 경우 상을 주는 시스템  
 을 도입했습니다.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월 단위로 상을 주는데, 하  
 루 목표를 달성했을 시 하루 5분 게임 시간을 줍니  
 다. 참고로 두 아이는 핸드폰이 없고 게임도 특별  
 한 날에만 (구정, 추석, 성탄절, 외할머니·외할아버  
 지 생신날)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아  
 이가 제안하여 몇 달 전부터 하루 목표 달성의 보  
 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주별로는 매주 토요일 저  
 녁 한 주간 세운 목표를 성실히 성취했을 때 정해  
 진 용돈을 주고, 달별로는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책  
 을 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목표를 실행했지만 점점 이것이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잡아 이제는 스스로 정해진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코칭을 받고 있는데 저의 목표 중에 아이들을 위해 세운 목표와 실행전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항상 허그해주고 그날 하루에 일을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후에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엄마 사랑 충전의 시간이라고 큰아이가 말합니다. 특별한 날 빼고 항상 실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칭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정말 엄마가 사랑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느낀다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 되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1 코칭 시간을 통해 멘토로 삼을 성경인물을 소개하며 함께 나누는 등 그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자녀 코칭을 시작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자녀코칭의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고 코칭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점이 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이희금 사모님을 통해 코칭을 받음으로 저도 전보다 더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이라는 좋은 도구를 알게 하시고 또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좋은 자녀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한 성령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까지 각각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 코칭 중 암 진단, 꾸준히 성경필사, 신앙독서 하다보니 건강 되찾아

글 : 동일침례교회 최필자 권사

제가 코칭을 접하게 된 것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코칭을 하기 이전에는 신앙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칭 이전 신앙생활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예배드리며, 설교만 열심히 잘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일상이 바빠서 성경도 잘 읽지도 못했었습니다. 어쩌다 부분적으로는 읽기는 했지만, 평생 성경 일독도 못 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기도 생활은 교회 와서 하는 기도회 말고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심방 대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은 잘 못 했습니다.

제가 코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 교회 코치로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서일옥, 박종남 코치가 먼저 목사님과 코칭을 하면서 저에게도 코칭을 함께 해보자고 권면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일옥 권사가 코칭의 핵심을 짚어가면서 잘 설명해주면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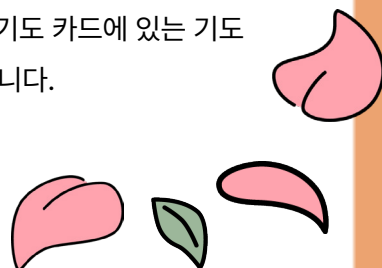
목사님께서 성경 필사책을 선물로 줘서 시편 말씀을 써본 후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코칭 신앙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종남, 서일옥 권사 셋이서 성경 필사책을

다같이 구입해서 써 내려가면서 성경 읽는 것도 시작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칭을 해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코칭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목표와 실행전략을 실시하였고, 8월부터 1:1 팔로업 코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코칭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7월에 받은 것입니다. 원래 저희 가정에 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쩌면 나에게도 암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암 판정을 받게 되니 "결국, 나에게도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께 갈 것인데!'라는 생각만 들었을뿐, 인생의 암울함에 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코칭을 하면서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코칭 목표를 세우고 실행전략을 세운 대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목사님께서 새벽예배 후에 바로 커톡으로 보내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전도 대상자인 친구에게도 바로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코칭 목표입니다. 그런 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치와 함께 공유하는 기도 제목과 목장 기도 제목, 그리고 주일 기도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준비해서 먹고 치운 후, 성경 일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적 성장을 위해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칭을 잘 시행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계획을 나누고 가정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코칭 계획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코칭을 시작하는 처음 시기에는 가끔 남편이 핑잔을 주기도 했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코칭 실행전략을 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칭 이후 저희 가정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암에 지배되지 않고, 이겨내다.

암 판정 받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암을 받고 치료 과정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실행전략을 먼저 끝내놓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항암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되고, 수술을 받은 지는 2년이 되어 갑니다. 올해 6월 검사 때에 의사 선생님께서 다 좋은 상황이라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코칭을 통해 얻은 신앙의 많은 유익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성경 일독을 하고,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 필사 1번 다해가고 있습니다. 독서 하고는 학교 졸업 후 담을 쌓고 살았는데, 신앙도서를 읽고 현재까지 2년 동안에 30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신앙적으로 많은 것

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독서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역사의 흐름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옛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 것이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에서 잠시 남편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었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코칭을 할 때는 핑잔을 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코칭을 할 때는 준비도 해주고 불도 켜주고 책상도 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저의 말투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픈 나를 돌봐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등 헌신에 대해 '고맙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얻게 된 많은 변화 그리고 암을 이겨나가고 있는 용기,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코치인 박종남 코치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 권사이지만,





신앙과 믿음, 그리고 코칭과 관련하여 좋은 코치입니다.

박종남 코치는 말을 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설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치의 너그럽고 중심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 큰 도움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매사에 솔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 바로 남편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도록 용기와 격려를 하는 모습도 꼭 동생이지만 언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김영숙 권사의 코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올해 초부터 코치로서 피코치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올해 76세이신 김영숙 권사님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 피코치는 책임감 있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세로 인해 몸도 건강하지 못하시지만, 영적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 필사도 하고, 눈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적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목표로 세워 놓고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매달 진행하고 있는 팔로업 코칭을 통해 코치와 피코치의 만남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성취 통계를 위해 만나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칭찬을 주고 있는데,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모습에 도리어 제가 도전을 받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신앙의 어려움이나 일신상의 문제 등에 대해 속내를 숨김없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보자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를 위해서 코칭을 받고 있지만 약간 주저하거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미심쩍어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것부터 천천히 진행해보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시작해서 3년째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코칭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성령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해보자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책을 읽고 볼 수 있고, 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환자라는 것 생각하지 않고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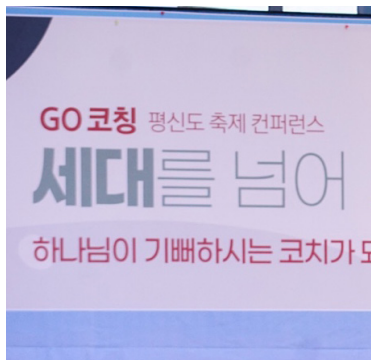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님을 도와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나 몸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 평신도 컨퍼런스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리더를 세운다.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리더를 세운다.



GO 코칭은 한 사람을 변화와 혁신으로 가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적어도 5세대 이상을 코칭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한다.



GO THRIVE COACHING



## | 늘푸른주일학교 조직코칭\_ 주일학교 보고자료

#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으로 3명에서 13명까지 늘어

글 : 늘푸른교회-심규옥 전도사

2021년 1월 늘푸른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당시 온 세상이 코로나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심용훈 담임목사님께서 교회공동체와 주일학교 사역에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하므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셨습니다.

늘푸른교회는 매월 셋째주 주일예배 후에 실행전략팀 멤버들이 모여서 한 달동안 추진한 실행결과를 함께 나누며 개발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코칭을 받고 있는 저도 실행전략팀 모임에 동참하여 제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보고하며 어려운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영적상태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희 늘푸른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두가지의 개발점을 세웠습니다.

1.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
2. 전도전략을 세우고 전도하기.

### 개발점1 학생들의 신앙성장에 대한 실행목표

1. 성경읽기- 쉬운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매 주일에 통독카드에 형광펜으로 체크합니다 작년에는 구약,신약을 읽는 학생과 구약을 읽은 학생을 성탄절에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친구들과 함께 주일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1장씩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과 은혜 주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실줄 믿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어린이 단체 카톡방에 아침마다 드라마바이블 요한복음을 1장씩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2. 성구암송 -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성경목록가, 시편1편, 시편23편, 등 암송대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3. 큐티 - 꾸준히 큐티하고 주일에 체크합니다(현재 2명, 배가)
4. 심방 - 전화심방과 카톡심방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믿음이 없는 학부모님 4분-카톡으로 메시지 전달)

## 개발점2 전도전략 세우고 전도하기에 대한 실행목표

### 1. 어린이전도협회의 굿뉴스클럽(새소식반)을 매주 수요일 3시에 운영하기.

시작전 게임과 찬양, 성구암송, 말씀, 선교사이야기, 복습게임과 맛있는 간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 혼자 운영하다보니 모든 프로그램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쁘더라도 꼭 챙겨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뭘 까요? 맛있는 간식입니다~ㅎ. 간식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메뉴를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간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학생들과 미니피자를 만들어 먹은적이 있는데 맛있었나봐요. 한 친구가 교회주차장에서 미니피자를 팔아보자고 하더라구요~ㅎㅎ)

### 2. 학교앞전도와 놀이터에서 전도하기.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근처의 학교앞과 놀이터에서 어린이들 3명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기(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 작년 5월에 늘푸른교회전도자들과 전도협회협력자들이 함께 학교앞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나온 경찰관들에게 재제를 받고 전도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학교앞에서, 놀이터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합니다.

### 3. 매력적인 전도전략으로 환경조성하기.

(1)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갖게하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보드게임과 퍼즐, 도서와 미니탁구장등 간단한 운동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을 통해 레고블럭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서 즐겁게 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전도할 때 활용할 레고블럭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쿨렐레 배우면서 복음전하기.

지난 여름방학동안에 우쿨렐레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집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초를 배웠고 매주 토요일에 계속 연습할 계획입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주일학교 예배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4. 학생과 개인 구원상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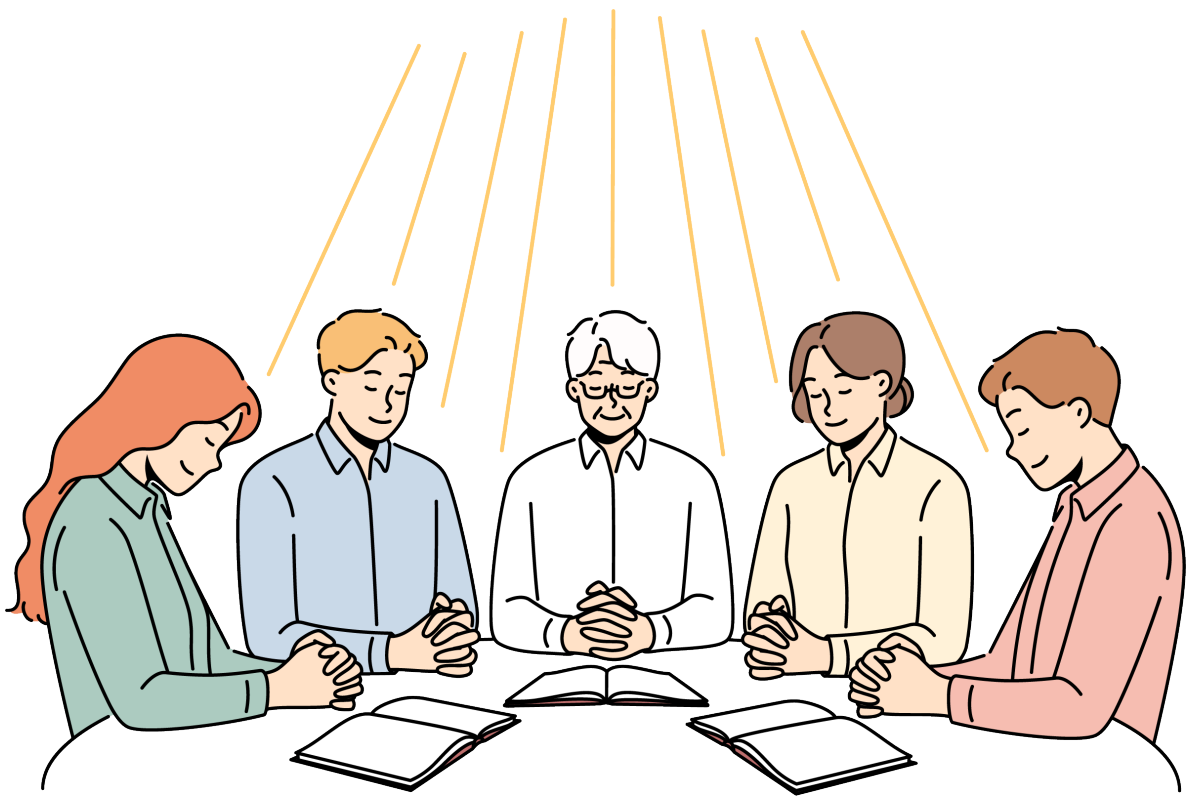
주일에 상담시간을 내기 힘들다보니 최근에 교회에 나온 새친구들의 영적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동안 어린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구원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개인구원상담을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5. 분기별로 2명의 학생 전도하기.

10월 현재 11명을 전도하여 137%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1년 1월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 섬길 때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가운데 3명의 학생이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는 평균 10~13명의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는 늘푸른교회 21명의 학생들과 협력교회 학생들 6명 모두 28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 담임목사님을 만나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코칭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보완점도 찾을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코칭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므로 개발점에 대한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님들,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물질의 후원자님들, 주일에 뒷정리를 해주시는 사모님, 차량운행해주시는 권사님, 유치부어린이들을 돌봐주시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아멘 (마9:37-38)

아직 교사가 없는 주일학교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교사를 세워주실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는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전주온고을제자교회-김지선 자매

## 평신도 축제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온고을제자교회교회에서는 이번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

20명이 참석하여 단일교회로서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지선 자매는 교회에서 코칭세미나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 참여해 코칭을 알게 되었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 개인의 삶과 가정에 코칭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편집자 주



<전주온고을제자교회는 이날 찬양으로 컨퍼런스를 섬겼다>

저는 온고을제자교회에 다닌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신체적, 사회적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동안은 머리로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되는 방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 가정 안에 나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가야되고, 우리 가정의 방향성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자녀코칭 부분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

습니다. 저에겐 21살, 고1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코칭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 체크리스트에 가정예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코칭 컨퍼런스에 9일 다녀오고 나서 14일 토요일에 아이에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며칠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일예배만 참석했지 가정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 아이가 “내일이 주일인데 왜 또 예배를 드려요?”라고 물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먼저 예배자가 되자고 했더니 순순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정예배부터 한발자국을 떼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코칭세미나에도 참석하여 교회의 방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 동아시아신학교 졸업생 서군정

# 느리지만 변화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초 동아시아신학교에서 코칭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당시 수업은 석정문 교수님과 최선희 교수님께서 함께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나는 완전히 복종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으로 복종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관장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칭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며 매일 스스로 정한 목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대일로 코칭을 만나 고감했습니다. 코치의 지도와 소통을 통해 나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 성장과 변화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느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져 점점 더 성숙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믿음 있게 목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서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코칭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저의 변화로 인해 코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 포아스 텅과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친구도 큰 영감을 받고 코칭 수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6명의 친구들과도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칭으로 맺어져 점점 더 깊어지고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중국의 모 교회에서 우리 가족 인솔하에 교회 내 7명의 주요 전도 및 동역자들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일정

중에 동아시아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중에 어머니께서 저의 이야기와 변화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9월에 총 11명이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여 온라인 신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어머니와 형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교회 인솔자들의 시야와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코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10년의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바라지만 진전하기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신태인침례교회-정미선 집사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코칭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 베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소감문을 적어봅니다.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지난해 시작한 1:1코칭은 균형을 갖추진 못한 저에게 가장 큰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의 영역인 지적, 영적, 육체적, 사회적 목표를 통하여 균형 있는 삶의 지침들을 갖추게 된 것 감사한 마음입니다. 숨 가쁘게 지나만 온 것 같은데 어느덧 기쁨과 아쉬움을 더하여 보람의 열매가 차곡차곡 채워진 한 해의 여정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1년의 목표실행 결과들을 돌아보며, 실행영역과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의 균형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더욱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의지와 마음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씩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한 달 한달 코칭을 통하여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조대식 목사님과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 2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도 홀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도우시

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듯 혼자보다 둘이 나옴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코치와 피코치를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코칭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코칭 이전에도 스스로 하고 있던 목표들이 있었지만, 시간도 분량도 흘러감에 맡기며 일관성 없이 하였기에 5년에 걸쳐 창세기를 필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니 시편 150편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였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견지 못하는 저를 견제해주는 시간이 되었고, 마음은 하늘을 바라고 다 다르게 한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8월초 석정문 교수님, 이희금 사모님과 코칭 컨퍼런스를 갖게 되며,제가 가장 실행하지 못하였던 육적목표를 코칭 받은 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소중함과 시간의 아쉬움이 더욱 느껴지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비록 제일 실행하지 못했던 육체적 목표들이 있지만,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더욱 아름답게 이루고 균형 있게 가꿀 수 있을 것을 믿으며!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 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저와 우리 공동체가 때마다 시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의 퍼즐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듯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잘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석정문 교수님과 이희금 사모님을 만나게 됨이 은혜이며,언제나 도전과 지지를 아낌 없이

주시는 조대식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칭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다 가치를 더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피코치와도 감사한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들을 나누며 즐거이 이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다다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칭팀 모두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소감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 『가슴 뛰는 삶』

글쓴이 : 인천 사랑침례교회 김현자 사모



저자 손현보 | 쌤앤파커스 출판 | 2008

페이지수 285

“

GO 코칭에서 제공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코치로서의 삶과 사역을 배우기 위해 6권의 책을 추천 받았다. 그 중 비전을 마음에 심기 위해 강현구 저 “가슴 뛰는 삶”을 읽고 감상문을 써 본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보면 계단을 오를 때가 있고 모퉁이를 돌면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때가 있다.

”

## 저항선을 돌파하는 유전자 스위치 ON(온)

그때 교두보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발판이자 중간 목표가 되는 특정한 돌파의 포인트이다. 교두보를 구축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엔 반드시 완강한 저항군이 버티고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꿈(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든 그 저항선을 돌파(driving force)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스위치 ON으로 올리는 일이다.

## 초능력으로 돌파하여 살아남은 병사

스위치 ON이 깨우는 초인적인 능력에서 (p187) 베트남 전쟁당시 미국인 병사 네 명이 작은 지프차를 타고 정글 속을 달리고 있었을 때 베트남 공군의 공격이 시작 되었다. 그 때 병사들은 차에서 내려 정글에 몸을 숨기고 총탄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 상태로 계속 차를 타고 앞으로 가자니 적군을 만나게 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차를 돌려 기지로 들어가자니 길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차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네 명의 병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프차로 냅다 달려가서 차의 네 귀퉁이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려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렸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대로 무사히 돌아왔다.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지프차를 들 수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시험 삼아 들어 봤지만 차는 흔들거릴 뿐 꿈쩍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 근육의 힘을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OFF에서 ON으로 올라 갔던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 전도 축제의 가속페달은 밟아 부흥의 꿈을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유전자가 깨어난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 전도 축제이다. 전도 축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이다.(P264)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어야 하겠다. 자신이 올해 세운 2가지의 목표인 한 달에 4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 전도하는 목표, 매달 8차례에 걸쳐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일을 위해 북치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야겠다. 매주 마다 작은 성취에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록하며 감사의 말을 해야겠다. 충분히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도 축제를 함으로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꿈이요, 축제가 아닌가?